

# 봄철 전주관광 '기쁨 두 배로 즐겨요'

### 시, 국제영화제·한지문화축제·U-20 월드컵 기간 중 여행 스탬프투어 진행 경기전·전주향교 등 14곳서 진행 풀코스 완주 관광객들에게 기념품 제공

봄 여행기간과 FIFA U-20 월드컵, 전주국제영화제, 한지문화축제 등 관광 박이벤트 축제기간동안 전주 주요 관광명소를 돌아 볼 수 있는 전주여행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 봄 여행주간, 한지문화축제, U-20월드컵,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으로 이어지는 봄철 관광특수를 맞아 오는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주방문 관광객

들을 대상으로 전주여행 스탬프투어 '한눈에 반했어!'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작은 재미와 관광만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스탬프투어란 전주의 대표적인 역사 및 문화명소를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명소를 방문하여 확인도장(스탬프)을 찍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관광안내소에서 스탬프 책자를 배부하고 확인하여 경

품을 제공하는 관광 이벤트 투어이다.

이번 스탬프투어는 경기전, 전주향교, 국립무형유산원, 지만벽화마을, 서학동예술마을, 남부시장&창년물, 한국전통문화전당, 동문예술거리, 객사길(객리단길),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덕진공원, 전주동물원, 전주수목원 등 14개소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하프완주(7개거점), 풀코스 완주(14개거점) 관광객 1,0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최라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봄 여행기간 일부 숙박업소, 체험관광, 음식점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전주국제영화제 등 각종 축제가 연이어 개최되는 만큼 전주를 방문해 각종축제 참가와 더불어 관광명소도 둘러보고 스탬프 투어에도 도전해 보면 좋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도시관광투어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관광권역 확대에 건강한 관광 생태계를 유지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관광만족도를 높여 재방문 유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압수수색 받은 남원시 공무원 2명 긴급체포

농업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전일 압수수색을 받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 A씨(38)와 B씨(44)가 긴급체포 됐다.

남원경찰서는 27일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은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역시 26일 긴급체포 했다.

공무원 A씨와 B씨는 건축업자로 부터 멜론 재배시설 건축허가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뇌물수수는 경찰이 멜론 재배 지원 보조사업을 조사하던 중 설계업자가 뇌물을 준 정황이 포착되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조사에서 "업자에게 돈을 개인적으로 빌린 것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근 기자



약촌오거리 사건 현장검증 2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 "지방의정연수원, 혁신도시에 설립해야"

###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 중앙정부에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의정연수원을 전북혁신도시에 설립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27차 월례회의에서 "전북혁신도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국에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교육기관은 전무한 실

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4~6기 지방의회 초선의원 비율은 60%를 웃돌고 지방의원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수백 건의 의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을 높여줄 교육훈련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대상 교육훈련은 국회 의정연수원 연 2회(3일간), 지방행정연수원 연 1회(3일간)가 전 부러며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줄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행정연수원이 이

전한 전북혁신도시에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해 집적화 한다면 전북이 지방의원과 공무원 교육의 메카로 성장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지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은 "지방자치시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의원의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복잡·다변화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줄 지방의정연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 다. /김민근 기자

### 덕진경찰, 소방안전훈련 실시

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27일 팔복 119안전센터와 함께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했다.

80여명 이상이 참석한 이날 훈련에는 경찰서 1층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상황전파, 인명대피 훈련, 소화기기 사용 등 초기화재 진압 및 응급조치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다.

박성구 덕진서장은 "이번 훈련으로 초기화재진압능력을 갖추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 봄철 불청결 부당요금 '이제 그만'

### 전주시, 숙박업 영업주 대상 내달 개최 U-20 월드컵 대비 친절·위생 서비스 결의대회

전주시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들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U-20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해 위생·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7일 시청 강당에서 숙박업 영업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20월드컵 대비 부당 요금 근절·친절·위생적인 숙박문화 정착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숙박업 영업주들은 대회 기간 동안 전주를 찾는 각국 선수단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불친절과 불청결, 부당요금의 '3불 근절 운동' 추진에 적극 동참, 쾌적하고 친절한 전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을 다짐했다.

결의 대회 후에는 외부강사가 초빙돼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웃는 얼굴 밝은 표정 손님맞이 인사법 △종사자 용모 복장지도 △불만고객 대응자세 △친절서비스 우수사례 등 위생 및 손님맞이 현대 서비스 교육과 위생교육도 진행했다.

시는 이날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이어 28일에는 덕진예술회관에서 덕진구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500여명을 대상으로 U-20 월드컵 대비 친절·위생서비스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완산구 음식점 영업주 500여명도 지난 6일 시는 시청 강당에서 열린 U-20월드컵 대비 친절·위생서비스 결의대회를 통해 불친절, 불청결, 부당요금 없는 대회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시는 주요 숙박업·음식점 영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U-20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3불 근절 운동 참여를 결의한 만큼, 친절서비스를 통해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 개최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숙박업·음식점 영업주에게 친절서비스와 향상된 위생수준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정성이 모여 반드시 성공적인 U-20 월드컵 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숙박업·음식점 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희망키움통장II 가입자 모집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II 신규가입 대상자를 오는 5월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주소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희망키움통장II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이 추가로 지원되는 통장으로, 3년 만기 시 7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족기준: 223만3600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신청일 현재 근로활동 하고 있어야 한다. 또, 법정 차상위 가구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중위소득 50%이하)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절차는 근로활동 확인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하면 되며, 가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가입 후 3년 동안 전북광역지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재무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은 △주거구입·임대비 △본인 및 자녀 교육 △기술훈련비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김민근 기자

### 상습 폭언 경찰 간부 '감봉'

2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해온 경찰 간부 A경감을 감봉 1개월에 처한다고 전했다.

A경감은 익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부하 직원들이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으며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A경감을 지난 6일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킨바 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

